



제천의 자연·역사 즐기는 기차 여행

동대문구 바깥 나들이 '동구밖'

멀리 펼쳐진 호수와 산, 새소리 가득한 숲길, 새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가득한 "여행"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 '마음 먹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작은 턱 하나, 계단 몇 개, 언제 어디서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마주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장애인에게는 여행을 망설이는 높은 벽이 되고는 합니다. 특별히 기차나 버스,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야 하는 여행지는 더욱 그렇지요.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국민의 93.9%가 국내여행의 경험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15.7%만이 국내여행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2021 국민여행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2022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

그래서 우리 복지관은 이 높은 문턱을 낮추고, 재가 장애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여행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나들이 '동구밖'을 마련했습니다. '동대문구 바깥으로 나가는 나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 프로그램은 여행의 기회가 적은 재가 장애인들이 일상의 경계를 넘어 자연과 새로운 경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된 나들이입니다.

특히 이번 나들이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에서 사회공헌 사업 '해피트레인'으로 함께해주셔서, 당일 기차여행으로 구성했습니다. KTX 승차권부터 점심식사, 관광버스와 여행 가이드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덕분에 참여자 모두가 더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행지는 충청북도 제천. 여행을 앞두고 참여자들이 직접 투표로 가고 싶은 여행지를 정했습니다. 나들이에 함께한 15명의 참여자는 청풍호반케이블카를 타고 비봉산 정상에 올라 청풍호반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고, 의림지와 역사박물관을 돌아보며 자연을 체험하고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좋고 설레서. 기차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좋은

것도 타보고, 좋은 구경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좋은데 또 끝나니까 아쉽고 애기 마음입니다. (서OO 참여자)"

"제천은 이번에 처음 와봤어요.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전OO 참여자)"

'여행'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행은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얻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행이 삶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행이 주는 삶의 힘과 기쁨은 장애와 비장애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동의 제약 없이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사회, 누구도 '혼자서는 못 가'라며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걸어갑니다.



영상보기

따뜻한 봄날, 마음을 나눴어요

2025년 함께-행복한 어린이 봄 소풍

지난 5월 15일 우리 복지관은 글로벌비전, 동서식품과 함께 '2025 함께-행복한 어린이 봄 소풍'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복지관의 아동 20명과 동서식품 임직원 21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아동과 임직원이 1:1로 짝을 이뤄 북서울꿈의숲에서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과 소통하고 함께 즐겁게 노는 추억을, 동서식품 임직원들에게는 발달장애 아동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따뜻한 경험을 선물한 자리였습니다.

서로 짝을 이룬 아이와 임직원들은 북서울꿈의숲을 함께 산책하기도 하고, 곤충체험관을 관람하며 자연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곤충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질문을 쏟아냈고, 임직원들은 그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넓은 잔디밭에서 고무줄 연을 날리고, 비눗방울을 불며 함께 놀면서 서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평소에는 마주치기도 어려운, 거리에 스쳐지나가는 누군가였지만 어느새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장난스럽게 웃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 속에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신뢰를 키워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며 장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임직원들. 함께 어울려 보낸 시간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평소 장애아동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번 소풍을 통해 아이들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동서식품 김OO 참여자)”

“아이가 너무 재밌었다고 또 가고 싶다고 하네요.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OO 참여자)”

관계는 언제나 진정성과 마음을 나누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눈을 맞추며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이다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되고, 서로 다른 모두가 함께 어울려사는 아름다운 사회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장애와 비장애, 아이와 어른. 경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에 다가서는 따뜻한 만남이 우리의 일상에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상보기



편집자의 말 |

이번 소식지의 주제는 '어울림'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어울리며 성장합니다. 이번 달 복지관에서는 어른과 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다름을 넘어 서로의 손을 잡고 웃음 짓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어울림'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었던 곳을 함께 가보는 여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부르는 노래, 어른과 아이가 웃으며 뛰어노는 소풍.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이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어울림의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장애의 유무와 세대를 넘어 모두가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사회가 더 풍성하고 따뜻하게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김동현 사회복지사



함께 부르는 노래,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다사랑합창단 ‘멜로디’ 류승각 지휘자를 만나다

지난 2024년 봄 처음 시작된 다사랑합창단 ‘멜로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합창단입니다.

20여 명의 단원들이 매주 수요일 저녁 모여 부단히 연습에 열중하고 있지요. 이번 웹진에서는 다사랑합창단 ‘멜로디’의 지휘자 류승각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류승각 선생님께서는 서울시합창단에서 1992년부터 30년이 넘게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테너이자, 다사랑합창단의 시작부터 지휘자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사랑합창단의 특별함

류 선생님께서 꼽는 다사랑합창단의 특별함은 ‘다양성’과 ‘화합’입니다.

“우리 합창단은 굉장히 다양한 단원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장애의 유무도, 연령도 10~20대부터 70~80대 단원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장애인 단원들이 돌발행동을 했을 때 혹시 어른 단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또 어른 단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젊은 단원들이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여러 고민들이 있었죠.”

하지만 처음의 걱정과는 달리 다사랑합창단 단원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류 선생님은 ‘진정한 합창’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단원들이 참 훌륭하세요. 합창단 활동을 하며 돌발행동이나 이런 저런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해주시고, 누가 연습에 빠지면 ‘그 친구는 왜 안 왔나?’하고 안부를 묻고, 또 다시 오면 ‘보고 싶었어’하며 맞아주시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합창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소리만 맞추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모이고 정서가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 다사랑합창단이 이 마음을 간직하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합창을 지향합니다”

류 선생님이 지향하는 합창의 핵심은 ‘즐거움’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한 음을 만들어가는 일, 연습이 끝난 뒤에도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 바로 그것이 류 선생님이 가장 바라는 모습입니다.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단원분들이 즐겁게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연습이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다음 주가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게 지휘자로서 제가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화합의 도구


류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합창단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합창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소리를 만들어가는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과 화합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조화롭게 맞춰나가는 그 경험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과도 닮아 있어요.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오늘날, 저는 합창이 다양성들을 엮어내는 좋은 화합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합창을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 11월 22일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희망UP 음악회'에서 공연하는 다사랑합창단.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